



보도자료

제6회 북한인권상 北인권 시민사회 세미나



연락처
02-599-4434
010-9077-6759
이메일
thkim8279@gmail.com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과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

일시 : 2023. 8. 25(금) 10: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북한인권상 시상

북한인권상은 2018년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정하여 제1회(수상자 태영호 의원)부터 제5회(김명성 조선일보 기자)까지 시상. 2022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설립됨에 따라 한변의 북한인권상 수여를 인수하여 이번 2023년부터 제6회째 북한인권상을 (사)북한인권이 수여하게 됨.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이민복(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 겸 대북풍선단장) : 오랜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

이명옥(탈북구호연합회 대표) : 다년간 다수의 재중탈북민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하여 북한주민의 이동의 자유 신장에 기여.

2.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모여 NATO에 비견되는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을 탄생시킴. 가장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자유통일을 지지. 북한인권 문제는 큰 변화에 직면하였는바,

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북한인권 최초 발의자), 수잔솔티(디펜스포럼 대표) 등의 축사와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이영현 제1호 탈북민 변호사, 김일주 북한인권증진위원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나.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도적인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함께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표할 것임.

- (1) 북한의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자국민) 석방 및 송환 문제
- (2)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생명권 침해의 중지 문제
- (3)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문제
- (4)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문제
- (5) 재중탈북민 2,600명 강제송환 중지문제
- (6)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결속과 유대강화 문제

2023. 8. 24.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